'대한민국 새 단장, 쓰담쓰담 캠페인' 전개

박용환 기자 | 승인 2025.09.30 17:58 | 호수 4188 | 17면

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

기지제 주변 환경정화활동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 알려

[농수축산신문=박용환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지사장 이광희)는 지난달 23일 전주시 덕진구 장동에 위치한 기지제 일원에서 '대한민국 새 단장, 쓰담쓰담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국민과 함께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농어촌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공사 직원들은 기지제 주변 환경정화 활동을 펼치며 쓰레기를 수거하고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를 알렸다.

특히 이번 행사는 농어촌의 대표 수변 공간인 기지제에서 진행돼 지역민들의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농어촌공사는 앞으로도 농업생산기반시설과 지역 명소를 대상으로 정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광희 지사장은 "쓰담쓰담 캠페인을 통해 깨끗한 농어촌 환경을 만들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하고 투명한 경영과 환경 보전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박용환 기자 parkyh@aflnews.co.kr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